

가치를 더하는

공간재생 라이프스타일 디벨로퍼

0222YO



세간이라는 목재업사이클 업체에서 만든 소반



폐목재 배출량 : 244만톤 (2020년 기준, 환경공단)



아디다스 페그물재활용 운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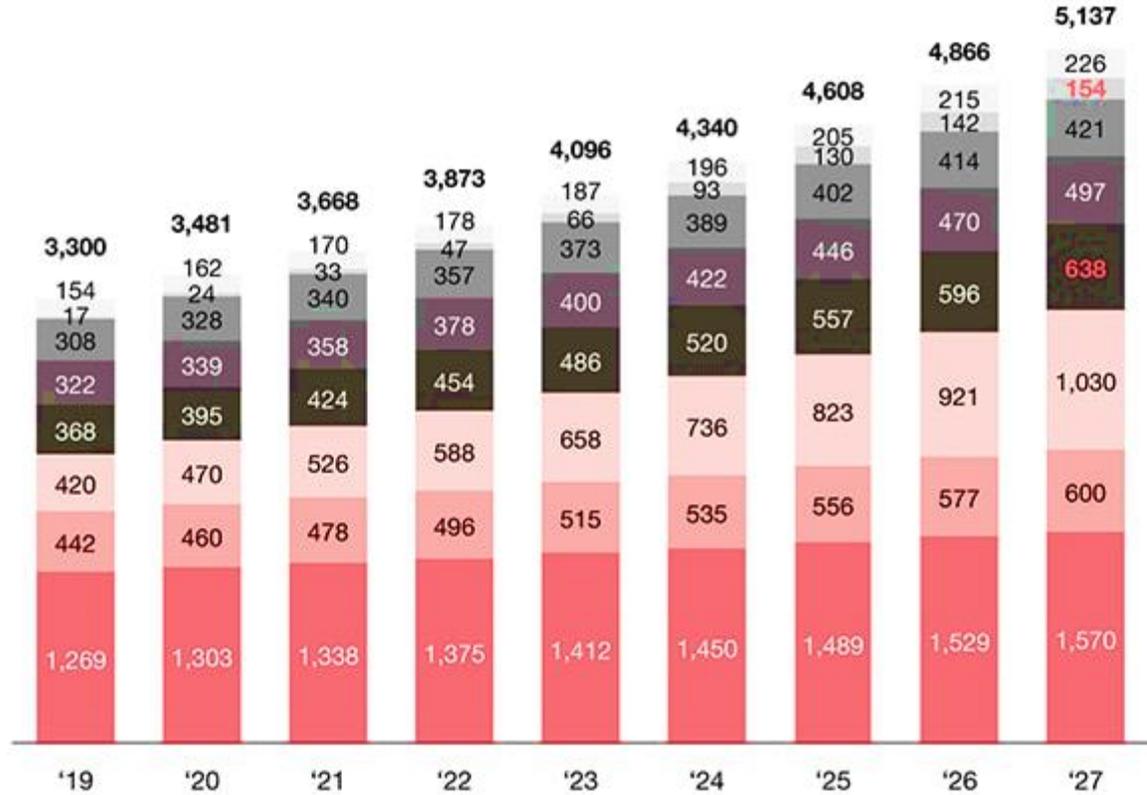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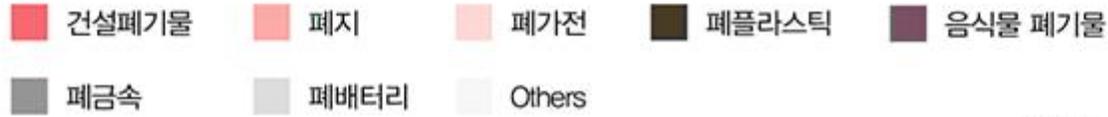


폐그물 : 매년 64만톤(유엔식량농업기구(FA))



## 글로벌 재활용 시장 전망 : 종류별

단위: 억 달러



CAGR	종류
5.7%	전체
4.9%	Others*
31.8%	폐배터리
4.0%	폐금속
5.6%	음식물 폐기물
7.4%	폐플라스틱
11.9%	폐가전
3.9%	폐지
2.7%	건설폐기물

\* 폐식용유, 폐섬유류, 폐유리  
자료: PwC



# 89,456

2022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한국 부동산원



홈 > 뉴스 > 정책뉴스

## 내달부터 빈집 정비사업 본격 추진...올해 871호 철거

인구감소지역, 자립도 낮은 지자체 등 47개 시군구에서 선정  
전국 빈집 13만 2000호 이상...인구감소 지역에만 6만 1000호

2024.07.25 행정안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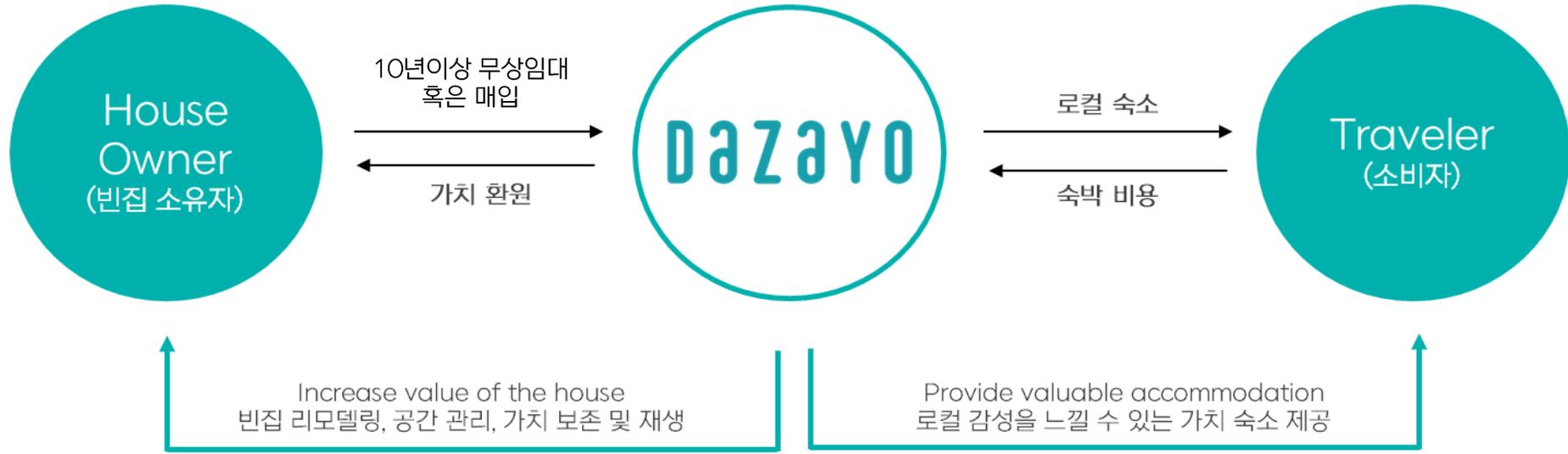
본문듣기 | 기사 | 더보기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자 정부 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지자체의 빈집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이에 지난 상반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한 결과 79개 시·군·구의 총 1551호의 빈집 소유자가 정비를 동의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47개 시군구의 총 871호의 빈집을 철거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편 현재 전국의 빈집은 13만 2000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빈집 소유자들은 복잡한 소유관계나 개인사정 등에 의해 자발적인 정비가 곤란해 대부분 빈집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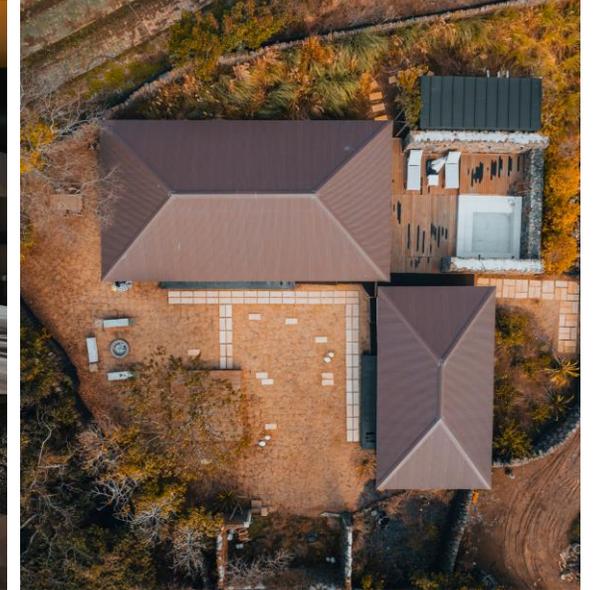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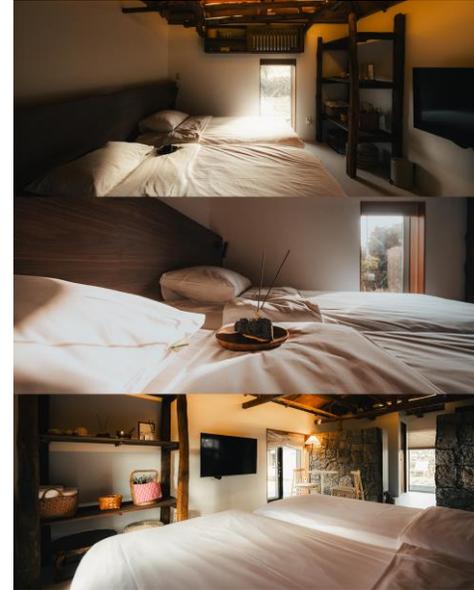


月	火	水	木	金	土
3	4	5	6	7	8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9 <sup>日</sup>	25	26	27	28	29

月	火	水	木	金	土
			1	2	3
	6	7		9	10
12	13	14	15	16	17
19	20	21	22	23	24
26	27	28	29	30	31

2003 APRIL 癸未年

	<b>月</b>	<b>火</b>	<b>水</b>	<b>木</b>	<b>金</b>	<b>土</b>
	MON	TUE	WED	THU	FRI	SAT



다자요는 사람들이 떠나 가치가 사라진 빈집을 감성이 담긴 새로운 공간으로 재생하고, 사람들이 다시 찾고 싶고 온전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마을에 관계인구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 기존 목재의 틀, 나무문, 돌로된 벽체를 살리고, 노후된 상수도 및 배관을 통해 수도누수 및 단열효율을 높이면서 자재의 재활용 및 건축자재절감으로 탄소배출저감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승룡의 취향이 담긴 빈집재생 : 하천바람집 (6월기준 전년도 풀부킹)



LG전자의 고객경험을 위한 마케팅공간



가구회사 일룸의 고객경험을 위한 마케팅공간

애월아빠들



애월아빠들 동물복지 유정란

REPLACE YOUR ORAL CARE  
Dr. NOAH



닥터노아 치약/칫솔 세트



아침미소 목장 요구르트

UGLYCHIC



리얼캐롯 콜라겐스틱

owndo<sup>o</sup>  
yours purely



온도 앰플크림, 클렌징바

HALLASAN 1950  
Chocolate & Bread



하라벳 초코렛



흑돼지 육포

FROM FRESH CLEAN JUICE  
JEJU  
ARBANG  
PREMIUM QUALITY JELLY



달하제주 아르방 젤리

AniBlock:



애니블록 보드게임

mamma  
recipe



맘마레시피 그린잇 그레놀라

지역기업/스타트업 제품들의 마케팅공간

2024. 5. 22

오빠(회사) 덕분에!!! N년만에 다섯 명이 모두 여행했다  
신난당~ 싸우지 말고 재미있게 보내고 싶다.  
숙고 개새새 좋다 우리집이면 좋겠다ㅋ

2024. 6. 11일 (화)

식사에  
회사 친구 ♡  
복차



경석이 회사 체고~♡  
2박 3일 잘 놀다가요~♡

친구찬스로 흥도나게 성공~!

3일내내 비온거 여행하러 온 지주였는데  
비가 많이 안와서 잘 놀다갑니다!!!

숙소가 너무 좋아서 여기서 더 잘놀았어요!

고맙다... 좋은 회사 다녀온 덕분에

'유아한' 휴가 즐기 간다 ㅋㅋㅋ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항상 행복하자 무리가족

기업들의 위케이션/복지공간

## 현재까지의 다자요의 성과

- 다자요의 빈집재생은 지자체의 빈집정비실적
- 지역경제활성화 및 빈집숙소의 가족단위 위케이션/복지로의 역할
- 지역제품의 홍보공간으로 활용

11채

설계/시공 경험획득

7,400명

관계인구 증가 및 추후 개인구독서비스 필요

2개사+

B2B 고객 확보로 향후 법인대상 회원권 개발필요

6개사

하나투어, 캐플릭스, LG전자, 일룸, 코베아, 노루페인트

20+개사

로컬제품 홍보

400+ site

다양한 유희공간 확보(빈집, 유희건물, 유희토지)

30+ 지자체/기관

다양한 협업요청과 정책 TF

- 표준되는 빈집재생속박업에 대한 예산/정책 수립
- 고객경험공간으로의 역할 증명

## 지역과의 연계와 지속가능성

- 2023년 기준
- 지역주민 고용 및 기부금조성 등으로 마을에 기여

11채

재생숙소

8마을

봉성리, 두모리, 월령리, 하천리, 신평리, 안성리, 북촌리, 고산리

1.5%

재생숙소 매출의 1.5%

4.7백만원

2023년 기부금(6개마을)

76.2백만원

지역주민 고용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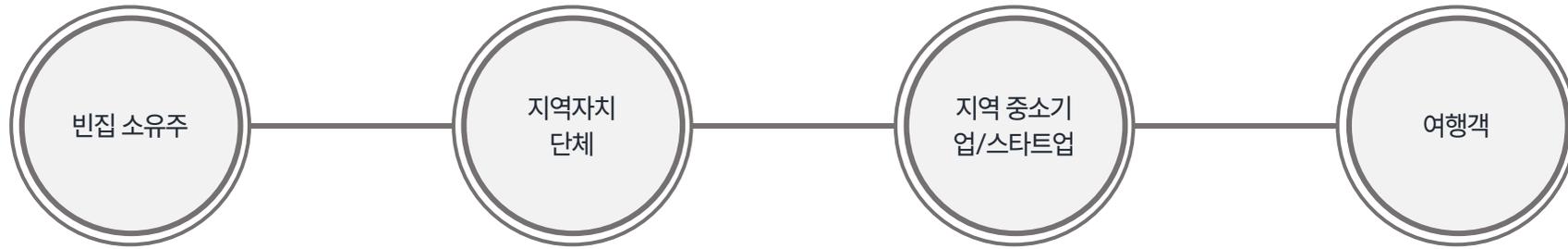
6명

지역주민 고용수

- E** 유휴공간 재생 : 방치된 빈집의 재활용으로 건축폐기물을 줄이고 효율적인 자원사용 및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환경적 대안
- S** 지역 상생 및 경제활성화 : 방치된 빈집 재생통한 지역문제해결 및 숙박시설로의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마을기부 등 지역과의 '상생'모델
- G** 지역 상생 및 경제활성화 : 크라우드펀딩통한 자금모집으로 대중의 자금활용 및 외감기업으로 투명한 감사와 주주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투명한 운영

### UN SDGs

- 1.빈곤 종식(SDG 1): 유휴 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 주민 고용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빈곤 감소
- 7.청정에너지 접근성 보장(SDG 7):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증진
- 9.산업, 혁신 및 인프라 구축(SDG 9): 혁신적 사업 모델, IoT 기술 활용을 통한 지역 산업 발전 및 인프라 구축
- 11.지속 가능한 도시 및 커뮤니티 구축(SDG 11): 빈집 재생, 도시 유휴 공간 개선,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구축
- 12.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보장(SDG 12):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 촉진, 자원 사용 효율성 증대
- 13.기후변화 대응(SDG 13): 탄소 저감,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자산가치 상승

빈집문제  
해결 및  
고용창출,  
관계인구증가  
지역경제활성화

제품 및 서비스  
홍보 공간 확보

가치소비와  
체류형 여행



**Dazayo**  
빈집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C 1  
LAB**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JD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IBK창공**

 **국토교통부**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SBC**  **중소기업진흥공단**  
Small & medium Business Corporation

**KDIT**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

 **제주관광공사**  
JEJU TOURISM ORGANIZATION

**Jeju**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

“빈집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 모델 제시 및 지역 공간 제공을 통한 체류형 관광콘텐츠개발과 지역 일자리창출까지 제공 가능한 혁신모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황당규제에 '한국판 에어비앤비' 접었다    자금 압박 '위기의 응진' 씨크비 다녀고 기그 ㅈ다

홈 > 산업 > IT

## [단독]26年前 빛장에 꺾인 숙박 스타트업의 꿈

입력 2019-07-24 17:28:25    수정 2019.07.24 20:04:26    권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 구독

## 규제로 두 번 운 다자요 "세상에 없던 혁신 하라더니 결국 현행 법이 발목"

입력 2019.07.25. 오후 4:51    [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 구독

## 규제 묶인 빈집 재생... 다자요의 '한숨'

입력 2019.10.06. 오후 6:26    [기사원문](#)

朝鮮日報 [+](#) 구독

## [경제포커스] 빈집 빌려주면 벌 받는 나라

입력 2019.10.03. 오전 3:13    [기사원문](#)

세계일보 [+](#) 구독

## 농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거주자' 있어야 허용한다는 정부 [심층기획]

입력 2019.10.05. 오후 12:02    [기사원문](#)

**사람이  
살지 않아서  
위법**

# 경찰조사

459일

0

원

60

%



“검찰조사를 받고 459일동안 매출제로인 상태로 직원의 60%까지 감원을 한 폐업에 몰린 상황.”

## 제주 북촌포구집 찾은 이상민 장관 "빈집 활용 모범 사례"

입력 2023.12.09. 오후 1:46 · 수정 2023.12.09. 오후 1:56 기사원문

 양영전 기자

 2  3

| 전국에 빈집 13만호↑..."세제 문제 해결, 재활용 노력"



[제주=뉴스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를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북촌포구집'에서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있다. 북촌포구집은 빈집 숙박 플랫폼 '다자요'가 빈집을 활용해 운영하는 숙박업소다.

2023.12.09. 0jeoni@newsis.com

## 순환경제가 어려운 이유

- "Towards the Circular Economy: Accelerating the scale-up across global supply chains" (2014, WEF)
  - "Circular economy in Europe: Developing the knowledge base" (2016, EEA)
  - "Growth within: A circular economy vision for a competitive Europe" (2015, McKinsey)
  - "Consumer Insights Survey" (2020, PwC)
  - "The Circular Economy: A Powerful Force for Climate Mitigation" (2019, WRI)
- 

기술적  
한계

경제적  
인센티브  
부족

불편함과  
높은 가격

수거과정과  
인프라문제

규제와  
정책의  
부재

## 규제와 정책의 부재

-페트병 이외에 다른 플라스틱 문제도 심각한데

△김정빈

=다른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거의 안된다. 환경의 복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구의 자정능력은 이미 해결단계를 넘어섰다. (환경부는 고시를 통해 2022년 2월 24일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을 마련하면서 페트(PET)에 대한 재생원료 사용 기준이 처음 마련됐다. 식품용기가 아닌 용기 및 페트 이외 재질에 대한 기준은 아직 없는 상태다. 우리나라는 식품 이외에 해외에서 널리 사용되는 세제용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생 원료 법적 기준이 미비된 상태다.)

제도의 부재(엄격함)

사례의 부재(해외사례/타 지자체사례)

독점적 기술/서비스에 대한 부정

기존 산업에 대한 관대함

-국내에선 재활용 신기술 사업화 단계로 이어지지 않는다. 신기술을 사업에 접목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김정빈=

지자체 공무원들을 찾아가서 네프론(소비자가 페트병과 캔을 가져오면 인공지능 기술로 오염도 등을 선별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수퍼빈의 수거 기기)이 순환경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쫓겨나기 일쑤였다. 구미시에서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첫 매출이 났었다. 시범 사업 거쳐 전국 확대를 위해 15억원 예산을 환경부에 매칭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혁신적인 기술이라 독점의 문제가 있다고 거부했다. 혁신기술은 일시적 독점 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점에서 정부 지원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국내 산업계는 그동안 왜 재활용 분야에 진출하지 못했나

△김경민=

그동안 국가정책이 워낙 오락가락하니까 못하고 있었다. 우리는 법이 만들어져야 산업이 크는 국가다. 그런데 이제 대기업들이 뛰어들려고 한다. 내수 시장이 아니라 해외 시장과 연계되어있고, 탄소중립 흐름이 있으니 국가가 흔들 수 없는 기반이 생긴거다. 이제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재생원료를 유럽의 제조사들에게 공급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폐기물로는 품질보증이 안되니 해외에서 수입해서 하고 있다. 문제는 내수 시장이 아직 글로벌 흐름을 못 쫓아간다. 우리나라에선 재생원료를 쓰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생수는 유럽에 판매할 수 없다. 유럽은 재생 비중이 의무조항이기 때문이다.

# 조금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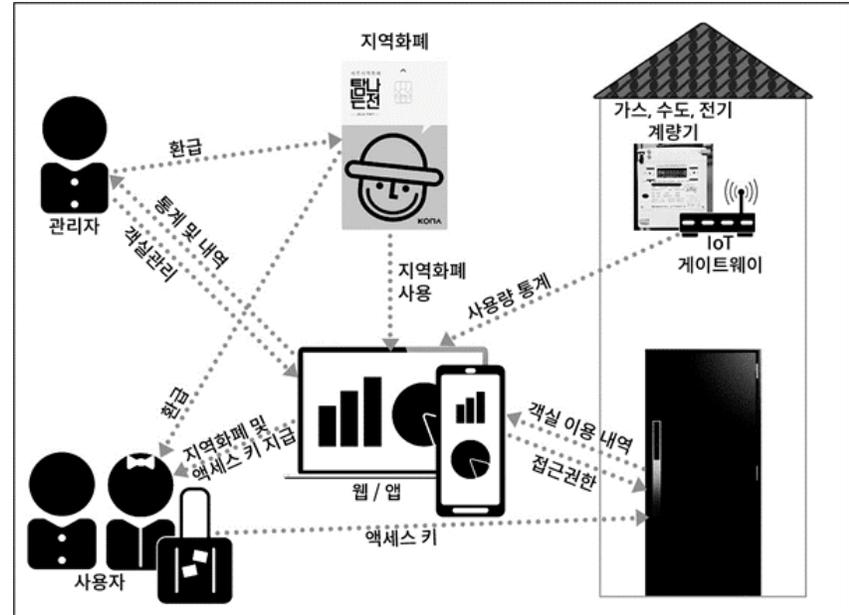
지역 원물을 활용한 어매니티

재활용플라스틱  
논스프링  
쉽게 떼어지는 접착식 종이라벨



정수기설치

플라스틱 생수병 제공 금지



객실에너지 보상 시스템

절감한 에너지데이터만큼 바우처로 보상



**“ 사업이란건 응당 외로운 것이고  
꿈은 현실에게 끊임없이 도전받는다.**

**이럴 때  
타인의 지지는  
확신의 한 걸음을 더 내딛게 하는  
힘이 된다.”**

- 300여명의 크라우드 펀딩주주분 중  
한 분의  
다자요를 투자하는 이유중에서

**DAZAYO**